

교육

광주·전남 대학 탐방

⑬ 조선대 국제화 교육

17개국 89개 대학과 학생 교류

요즘 같은 취업대란 시대에 웬만한 기업체에 취업지원서를 내려면 토익, 토플 등 어학성적은 기본 사항이 된 지 오래다. 여기에 인사 담당자들에게 인상을 심어줄 특징적인 취업 스펙 한 두 개는 반드시 갖춰야 지원서를 낼 수 있다. 이에 발맞춰 조선대는 전호준 총장 출범 2기를 맞아 '창의가 넘치는 자랑스러운 조선대학교'라는 슬로건 아래 글로벌시대를 선도해 나갈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서 6개월에서 1년간 현지 대학 학생들과 함께 전공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며, 복수 학위 프로그램은 조선대와 협정을 맺은 3개국 3개 대학에서 2년 동안 공부하고 그 학점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정이다.

어학연수·해외 인턴십 교육비 지원
글로벌 인재 양성 다양한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해외 캠퍼스 교육 및 어학 연수 등 국제화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어 입학에 앞둔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조선대는 해외의 17개국 89개 대학과 교류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미국과 뉴질랜드의 해외캠퍼스에 학생을 파견해 ESL과정 어학연수와 전공수업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 와세다대학 등 외국 유수대학에 교환학생을 파견해 현지 대학생들과 함께 정규 수업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졸업시 외국 대학 학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복수학위 제도와 어학 실력 배양을 위한 해외 단기 어학연수, 외국 현지에서 취업 경험과 어학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해외 의료 및 근로봉사, 문화교류 활동을 통해 봉사정신을 함양하는 국제봉사활동, 친구들과 함께 해외 여행을 하며 체험연구를 할 수 있는 해외 체험연구,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하는 한국문화체험 행사 등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중 해외 캠퍼스 프로그램은 미국 메리이 주립대 1년 과정과 뉴질랜드 빅토리아대 18주 과정이 있으며, 조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5개 학부(학과, 전공)가 한국공학교육인증으로 부터 공학교육 국제인증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기계시스템공학부, 에너지자원공학과, 전자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응용화학부 화학공학전공, 환경공학과 등 5개 학부는 앞

이들 프로그램의 최대 장점은 학부 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현지 교육비를 전액 교비에 지원해 주거나, 참가 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조선대는 2009년 외무부로부터 수주한 연구비가 총 745억원에 이르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국 사립대학 중 가장 많은 57억원의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조선대는 이 같은 국고 지원금과

대·산 마르코대 5주 과정, 호주 아틀레이드대 6주 과정, 학생이 직접 어학연수 국가 및 대학을 선택하는 셀프 디자인(Self Design) 과정 등이 있다. 이들 연수도 대부분 현지 교육비가 전액 지원되며, CU Leader 장학생의 경우 항공료와 숙식비까지도 지원된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외국대학에

대학 운영 내실화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역량 강화 사업에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어학실력 향상을 위해 대학 내에 설치된 어학교육원에서 빌드업 어학연수 과정 등을 실시, 이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공대 5개 학부
국제 공학교육 인증

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공학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특히 이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미국, 영국, 일본 등과 동등한 수준의 공학교육 이수자로 인정받게 돼 취업과 각종 활동 분야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교과부 '우수 교육사례' 선정된 전남 초등학교 6곳 살펴보니

전교생 참여하는 행복수업

농촌 초미니학교 단점, 장점으로 승화

원어민 함께 영어 몰입교육

도시학교보다 수준 높은 교육으로 승부



담양동초등학교는 매년 학생들의 독서능력 향상을 위해 '책의 날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제 7회 책의 날' 축제 모습. (전남도교육청 제공)

전국 학교 교육계획 수립 활용

전남지역 초등학교 6개교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전국 교육과정 자율화 공모전'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들 학교의 우수사례는 교과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홈페이지에 게재돼 전국 학교의 교육 계획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우수사례는 담양동초교와 무안 청계남초교, 장성 약수초교, 광주교대 목포부설초교를 비롯한 영광 대마초교 박미리 교사의 '나를 알고, 우리를 알고, 세계를 알아가는 아홉 색깔 무지개 교육', 광양 진상초교황죽분교 오미숙 교사의 '한 교실, 두 하모니 Win-Win 희망 프로젝트' 등이다. 이번 선정은 전남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극복한 것이어서 더욱 값진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다. 교과부가 선정한 전남교육의 우수사례를 살펴봤다.

◇"소규모라서 오히려 행복해요"=청계남초교는 6학년 41명이 재학생인 초미니 농촌학교로, 소규모 학교의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어 낸 사례다. 청계남초교의 교육목표는 '전원이 참여하는 행복 교육'이다. 수업시간도 독특하다. 산새소리 들으며 가는 중간놀이 시간, 전교생과 전교 직원이 함께하는 체육시간, 장애인과 함께하는 운동회, 지역 예술촌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예술 교육, 무학년제 수학 개별학습, 영어 통문장 위주, 책방 나들이 등이다. 학생 위주의 교육 덕분에 4년 연속 학습 부진자가 단 한명도 없을 정도로 학생들의 실력도 급상승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천 등 대도시에서도 전학을 올 정도로 학교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의 관문인 내장산국립공원 백양사 입구에 위치한 약수초교도 7학년 76명의 소규모 학교다. 이 학교의 특징은 인성교육을 기본으로 한 실력 향상이다. '청결 365', '칭찬 비타민', '상냥하게 미소짓기', '우리는 꼬마 신사숙녀' 등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을 업그레이드하고, '생각키움 일기쓰기', '아름다운 동행 아침독서 20분', '기초탄탄 밑다짐 학습', '클릭 사이버 가정학습', 'YES, ENGLISH' 등 차별화된 수업으로 실력을 다지고 있다.

◇"학교 교육 수준은 도시보다 높아요"=광주교대 목포부설초교의 교육 목표는 '글로벌 인

재 육성이다. 이 학교는 전국 초등학교 중 최초로 서울·논술식 평가제를 도입하고, 흥미와 호기심을 기르는 체험학습 확대와 세계화에 대비한 영어 의사 소통능력을 기르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원어민과 함께하는 몰입교육, 영어로 말하는 날 등 다양한 영어 학습을 통해 교육청 주최 영어활용대회에서 3년 연속 금상을 수상하는 등 수업의 우수성을 검증받고 있다.

담양동초교는 체계적인 수업 시스템이 돋보이는 학교다. 이 학교는 ▲매월 필수학습 선정 지도 및 모든 수업시간 형성평가 문항 예고제 ▲발표력 향상 실천 프로젝트 ▲자율학습 매뉴얼을 통한 학교와 가정의 연계지도 및 자율학습장 쓰기 ▲27종으로 구성된 교수·학습 진단 기법 도입 ▲야간·휴일 전용 반딧불 공부방 운영 ▲교사와 학생이 함께 독서하는 '책나라 아침 산책' 운영 등 6단계 학습 시스템을 구축, 교과부로부터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받기도 했다.

한계수 전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농산어촌 지역이 많은 전남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장점으로 승화시킨 교육적 성과"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필리핀에 한국어교육원

광주여대 2개 대학과 개설 협정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오장원)가 필리핀에 한국어교육원을 개설한다.

광주여대는 최근 필리핀 열방대학교와 바귀오대학교 등 2개 대학과 한국어교육원 개설을 우선과제로 한 상호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을 통해 광주여대를 비롯한 양국의 대학들은 교환교수 및 학생 상호교환, 학술 연구와 교류협력 증진, 국제적인 경쟁력을 지닌 인재를 양성, 공동학위제를 포함한 학술과 문화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협정을 맺은 바귀오대학교는 1948년 설립된 대학으로 재학생이 1만8천여명으로 총 11개 학부로 구성되어 있다. 또 열방대학교는 2005년 6월부터 학기를 시작한 신설 대학으로 신학과와 영어교육과, 신학연수와 등이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학술지 '민주주의와 인권'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소장 박만규)가 발간하는 학술지 '민주주의와 인권'(사진)이 전문학술지로서 권위와 전문성을 인정받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로 선정됐다.

광주·전남지역 대학 부설 연구기관이 발행하는 학술지 중에서는 첫 사례다.

지난 2001년 창간한 '민주주의와 인권'은 현재 9권3호까지 발간됐으며, 5·18민중항쟁 연구를 비롯해 민주주의와 정의·인권 관련 국내외의 사안들을 전문적인 시각에서 다룬 논문이 소개되고 있다. 또 전국 각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참여해 학술지의 질적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이 한국연구재단 측의 평가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최근 국내에서 발행되는 학술지를 대상으로 정서발행 여부, 게재 논문의 질적 수준 등을 심사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등재학술지로 최종 선정했다.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영태 교수(사학과)는 "이번 등재학술지 선정을 통해 명실상부한 전국 규모의 전문 학술지로 인정받게 됐다"며 "보다 안정적인 학술지 발행을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Recruitment advertisement for the Kwangju City Government, featuring a large table with various job positions, their requirements, and application procedures. The table is organized into columns for different departments and job types, with detailed text for each entry.